제목: 지속가능성에 대한 나의 관점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은 유지할 수 있는, 보존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것의 주체는 인간이 아닌 자연일 것이고 과학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해결해야할 문제가 된다. 이것을 성경 속 사건과 고사성어를 통해 해석해보고자 한다.

우선 인간의 죄악과 그것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지속가능성의 모습을 확연하고 의심할 여지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세상을 만들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전까지 수많은 사람들은 죄를 짓고 살아가며 인간의 육체와 본성에 휘둘려 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만들고 만다.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극히 낮은 자를 섬기며 모든 이의 죄를 구원하시는 사건은 인간들의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시는 다시 말해 어두워진 세상을 다시 밝히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든 역사적인 사건이다. 지속 가능성이라는 관점에서 우리의 죄는 자연의 정화작용, 수용가능성을 넘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구원받게 되는 것이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삶을 살아가며 항상 죄 앞에서 넘어지고 회개하며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가고자 기도와 예배를 드린다. 삶을 거대한 자연에 비유를 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것은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넘어서서 지속 가능함(sustainable) 상태라고 확고하게 말할 수 있는 것 같다. 다시 환경적 측면과 비교하자면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환경이 파괴되며 도리어 환경의 정화작용과 포용력을 넘어섰고 이제는 기술로 환경을 보존해야 하는 환경공학의 분야도 발전하고 있다. 인간인 우리도 삶을 살면서 육신과 본능의 결과로 삶이 많이 무너지고 있고 그것을 다시 세우기 위해 필요한 분이 예수님이시며 그 분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또한 지속 가능성은 욕심이라는 마음과 밀접해 있다고 생각이 든다. 여우와 두루미의 우화 속에서 서로의 입모양에 맞는 접시가 다른 것에서 비롯되어 서로가 서로를 상처주는 이야기처럼,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속담처럼 지속 가능한 삶이란 서로를 시샘하고 부러워하는 마음으로 오가는 것이 아닌 공생의 관계 속에서 유지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환경과 인간의 관계처럼 항상 서로에게 좋은 관계일 수는 없지만 서로의 행위가 영향을 주며 그 팽팽함이 계속 연장되는 것이다. 각자의 욕심을 서로를 위해 조금씩 버리는 삶을 산다면 그 삶이 지속 가능해진다 라는 표현을 쓰고 싶다.